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यो”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마태복음 7장 1-2 절.....	5
5212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	5
5547 올바른 기독교.....	6
5548 올바른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일.....	7
사랑을 행하는 삶.....	9
0343 자기 사랑의 위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9
0671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 없음과 허무함.....	9
3918 모든 삶의 형편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섬김. 가난. 베푸려는 의지.....	11
4868 이웃 사랑.....	12
6017 긍휼.....	12
7249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13
사랑 없음의 결과.....	15
0665 권력의 남용.....	15
2810 미움과 그의 영향.....	16
3300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역사의 결과.....	17
3625 사람이 종말을 스스로 결정한다. 저조한 상태.....	18
정의감.....	20
7482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20
0548 연합이 되라는 경고... 온화함... 사랑.....	21
1869 정의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22
3227a 의와 공의. 인종과 민족.....	23
3227b 의와 공의와 인종. 민족들.....	23
3906 이웃을 향한 공의. 하나님의 질서.....	24
5432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 원수를 향한 사랑.....	26
복수.....	27
1029 복수는 나의 일이다.....	27
1753 "복수는 내 일이다...".....	28
4837 정죄와 속죄. 영원한 질서.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29
6103 정산하는 때의 심판. 보응.....	30
하나님 앞에 책임.....	32
5950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신이 자신을 심판한다.....	32

6236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	33
6952	하나님 앞에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34
7095	빛의 직분. 책임.....	35
8219	종말의 때에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심.....	36
저세상에서 받는 보상과 결과.....		39
4574	사랑의 정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정도를 평가한다.....	39
4890	사랑의 삶의 상급은 저 세상에서 축복된 삶.....	40
5322	사랑 없음이 저 세상에까지 주는 효과.....	40
5670	육체의 일은 드러나게 된다. 저세상.....	41
6242	죄에 대한 형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	42
7422	저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보상.....	43
7638	너희가 판단한 것처럼 너희는 판단받을 것이다.....	45
사랑은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한다.....		47
4131	공의. 같은 권리. 응답하는 사랑.....	47
4986	사랑. 주는 일의 기쁨. 응답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믿음.....	48
5019	감사.....	49
5635	모든 도우려는 의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50
3744	그리스도의 약속. 조건과 성취.....	51
6325	이 땅의 삶은 단지 고향을 향하는 길에 통과하는 과정이다.....	52
5905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53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

B.D. No. 5212

1951년 9월 15일

나는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이다. 너희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비록 내가 어떤 죄도 지나칠 수 없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고려하고,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 부드러움과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때 심판한 것처럼 너희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한, 연약한 의지를 가진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가 너희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의 죄를 꾸짖어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내 뜻에 합당한지,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깨달음을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죄들을 부드럽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나는 어떤 죄도 지나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내 힘과 은혜가 너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내 능력을 항상 요구하고, 내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너희에게 항상 경고한다.

나는 선하고 공의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를 행한다면, 나는 묵인할 수 없고, 너희가 불의를 불의로 깨닫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도록 노력할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불의를 알려줘야만 한다. 너희는 죄를 피하기 위해 죄를 깨달아야만 하고, 내가 너희가 죄를 깨닫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선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의 피조물들이 죄를 짓는다면, 벌을 주고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얻기를 원한다.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잘못된 사랑으로 불의를 허용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불의가 자녀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양육하도록 허용하라. 책망도 또한 순종하며 영접하라. 왜냐면 책망은 단지 너희들이 올바르게 못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로써 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계명을 항상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선하고 공의롭게 행하게 된다. 너희도 또한 부드럽게 되고 자비롭게 되라. 사랑이 없이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일에서 인내하며 겸손하고 온화한 가운데 나를 따르라. 너희가 실패할 위험에 빠지면, 나에게 도움과 힘과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영적인 위험과 또한 너희의 의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전에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시도하는 재판관이다. 단지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해서 너희가 연약하게 되

면,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항상 부드러움과 긍휼이 역사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올바른 기독교.

B.D. No. 5547

1952년 12월 5일

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즉 그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사람에게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을 요구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따라야만 한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러므로 또한 구속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명한 것처럼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랑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의 성품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이성적인 믿음이고, 실제 예수의 존재와 아마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인간 예수가 이웃을 위해 드린 희생의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사랑을 행하면, 이를 이해하는 일이 일어난다. 왜냐면 그의 영이 심장을 통해 비로소 그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 안에서 사는 일을 의미하고, 그러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 인척하든 간에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라는 용어는 예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합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았던 것처럼 사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음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이상 진정한 기독교가 없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완전히 식었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은 낮은 그들 모두에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의 구속사역을 활용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 죽은 무리 밖에 있다. 그들은 실제 십자가를 본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부인할 수 없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 완전히 의미가 없게 되었고, 단지 의미와 힘이 없는 말이 되었다. 왜냐면 사랑이 비로소 이해하게 해주지만 그러나 사랑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눈에는 이교도나 불신자인 사람들

을 공식적인 교회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멸하며 낮추어 본다. 그들이 언젠가 구속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 그들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의 사랑의 정도가 너무 낮아 그가 저 세상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빛나는 빛이 그를 동반하지 않게 되면, 그런 모두 사람들에게 끔찍한 깨어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야만 하게 될 것이고, 구세주를 찾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오,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미지근한 태도를 통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을 안다면! 너희가 언젠가 얼마나 쓰라리게 후회해야만 하게 될지를 안다면! 너희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한다. 즉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고, 그러면 비로소 그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1952년 5월 12일) 너희는 그를 위해 나설 것이고, 그에 의해 구원을 받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단지 예수의 영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닌 외부에 보여주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올바른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일.

B.D. No. 5548

1952년 12월 5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한가지를 더 알려주어, 너희가 사람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 너희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이 너희를 죄 가운데 놔두기를 원하지 않았다. 죄는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상태로는 내가 너희 가까이 거하는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사랑의 불길에 너희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없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옷으로 가린 상태로, 너희와 비슷한 옷을 입고, 이로써 너희가 놀라지 않게, 너희가 피할 필요가 없게, 내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면서 다가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인간으로써 너희에게 다가 가야만 했다.

내가 왜 너희에게 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이해하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너희는 왜 내가 너희와 같은 형체로 왔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내 신성이 사람 안에서 거하는 일도 법칙을 따라야 하고, 너희가 단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내 사랑의 영이 어디든지 기본 조건을 갖춘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자신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때 그는 내가 그 안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준다. 왜냐면 나는 내 성품인 사랑이 있는 곳에 단지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적인 사랑이 너희를 돕기 위해, 영원한 법칙을 거슬리지 않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형체를 선택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는 사람 안에 즉 그의 사랑과 의지가 나를 대적하는 자 안에 거한다면, 이 영원한 법칙을 어긴 것이다. 사랑이 너희에게 돕기 원했고, 인간 예수가 사랑

이 충만해서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도움주는 일을 했다. 그는 너희 죄값을 지불했다. 공의의 하나님인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은 죄를 단순히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 드러진 속죄를 영접했다. 그러나 만약에 단지 이 속죄가 자유의지로 사랑에서 나와서 행해졌다면 그런 속죄를 영접한다. 인간 예수가 바로 이런 속죄를 행하여, 너희의 구세주가 되었다.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물을 드렸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측면에서 구속의 역사를 바라 봐야만 하고 그러면 너희는 이 구속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을 때, 너희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따른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뤄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단지 말 작난이다. 왜냐면 올바른 믿음은 사랑을 통해 비로소 생명으로 깨어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독교인으로 불리기 원한다면,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 너희가 그의 가르침의 반대로 산다면, 너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처신하는 일이고,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너희가 영접한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써 증명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일이다.

아멘

자기 사랑의 위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B.D. No. 0343

1938년 3월 22일

어느 때이든지 너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주는 위로들을 너희를 위해 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주님 자신이 이처럼 모든 존재들을 영접하는 곳에서 너희는 날마다 그의 은혜를 체험한다. 너희가 단지 영원한 분을 추구하면, 영원한 분은 너희의 심장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나 이미 아주 작은 크기의 자기 사랑이 주님이 너희에게 전해주는 큰 은혜의 능력을 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자기 자신을 우선에 두면, 그에게 올바른 길을 가는 일이 또는 주님 곁에 머무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먼저 이 계명을 성취시키려고 해야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우선에 두어서는 안된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너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이웃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도로 베풀어야 한다.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너희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행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베풀 정도로 주님이 너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너희는 이러한 최고의 의무를 다하려고 시도하라. 그러면 아버지를 향한 길이 너희에게 쉽게 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영역에 거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영원을 위해 양육할 수 있으면서,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다운 것을 제공할 것이다.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짧은 기도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쉽게 성취할 수 있게 보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친구들과 활발한 생각의 교환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관찰해보는 법을 배울 것이다.

사랑의 계명이 너희 자신에게 너희 삶의 마지막까지 가장 활발하게 일하도록 자극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길을 무익하게 간 것이 아니고, 너희 혼이 성장하도록 도왔다. 너희가 너희의 이웃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한 일은 이미 풍성하게 응답을 받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통해 온전한 상태에 도달했고, 하늘의 상급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 없음과 허무함....

B.D. No. 0671

1938년 11월 16일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물질을 움켜쥐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끔찍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도의 결과를 다시 제거하기 위해 끝이 없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

회 생활에서는 단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 문제를 향한 대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많은 재물의 송배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혼의 구원을 위해 거두어 가기를 원하는 것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얻으려고 하면서, 물질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강한 정도와 그들의 의지와 정욕을 피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 세상에는 물질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지 자유의지로 이런 유혹을 물리침을 통해 혼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제 모든 소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강제로 그들의 소유를 거두거나 파괴하면, 전적인 의지로 자유롭게 거절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극복하여 세상이 항상 제공하는 것을 향한 소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혼을 향한 모든 시험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이제 끔찍한 방법으로 돈과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이와 같은 때에 사는 인류에게는 아주 큰 위험이다. 단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칠 것이 없이 모든 소유를 적게 만들거나 모두 없애는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또는 다른 일들을 통해 세상 소유의 무상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일은 죄를 범하려는 유혹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이 잘못 추측한 피해의 원인을 쉽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높은 권세의 역사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실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염려하며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것을 항상 또 다시 자주 흔들어야만 한다. 단지 소유하려는 의지를 갖기만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멸할 만한 일이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자유의지로 소유가 적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자신의 남는 것으로 불쌍한 자를 도울 때 그들의 재물은 진정한 목적을 이루고 그의 재물은 줄어들지 않고 더 나아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가 항상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면, 그는 큰 위험에 처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주는 대로 네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먼저 자신과 자신의 평안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들어내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그를 다루는 일을 기대해야만 한다. 그의 소유와 재산은 그에게서 거두어 지고, 그의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삶에 의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먼저 그는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묵상하고,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영적인 소유를 추구하는 혼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 땅에서는 돈과 소유가 실제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그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권세와 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산 사람의 혼은 모든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세상의 재물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를 거절한 사람에게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의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에게 의탁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만 한다. 즉 전적으로 모두 그의 신적인 인도에 너희를 맡겨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그의 의지 아래 뒤야만 하고, 그러므로 너희 삶이 단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원해야 하고, 항상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진실로 너희 혼을 위해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너희 삶의 방식의 원칙으로 삼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를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 땅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는 일이다. 너희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거나 또는 평범하고 연약하거나, 너희는 이런 일을 사람의 모든 형편에서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섬기기 원하면, 너희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어느 누구도 베풀 수 있기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의 베푸려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전혀 물질적인 소유가 없을지라도, 그는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이로써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가 베풀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의지는 선한 행실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사랑의 행동도, 보여주는 행동에도, 심장 안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단지 심장을 보고, 심장 안의 어떤 움직임도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없다.

진실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적은 것을 베풀 것이다. 그는 염려하며 질문하지 않고 나눈다. 그는 몇 배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며, 자신의 소유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작은 소유가 지금까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성장한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의 인도는 목표에 도달하는 일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항상 심장의 사랑의 인도를 받게 하고,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의 은혜에 너희 자신을 의탁하는, 이 한 가지 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 가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게 공급하는 영원한 사랑 자신과 기도로 연결되면, 너희는 가장 큰 육체적인 영적인 위험 속에서 도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 사랑.

B.D. No. 4868

1950년 3월 29일

너희가 나의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행하는 일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는 이 행동으로 나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너희가 희생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너희의 이웃인가? 그들이 도움을 청한다는 말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러 너희에게 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희 이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고, 사람들의 고통이 너희가 측은하게 여기게 하면, 너희는 언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고, 타당한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도울지라도, 만약에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귀찮게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이웃사랑을 행하면, 이는 이웃사랑으로 여길 수 없다. 이웃을 도우려는 일에 많은 동기들이 있다. 그러나 단지 너희 심장이 인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웃 사랑이 단지 나에게만 유효하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으면, 이웃을 돕는 일이 조직화되고, 마치 기계처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웃 사람의 고통은 줄게 해줄지라도, 그런 일은 이웃사랑의 역사로,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여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베푸는 일은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물질적인 도움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다른 도움도 즉 모든 친절의 시선과 모든 선한 말들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면, 사랑의 역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영적인 위험과 혼적인 위험이 세상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곳에서 너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영적인 양육을 통해 내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통해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속한 일들이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부드러운 동정심을 느끼는 심장을 요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웃의 심장에 사랑을 일깨워 그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너희는 두 배로 상급을 얻는다. 그러나 상급 때문에 도우려 하지 말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도우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역사는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긍휼.

B.D. No. 6017

1954년 8월 6일

너희는 나에게 긍휼을 구한다. 그러므로 긍휼을 구하는 너희에게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내 은혜와 긍휼이 너희가 영원히 멸망을 받는 일을 막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십자가의 내 죽음이 가장 큰 긍휼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면 내가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한 너희의 고통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고

비록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어두움이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한 공의로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어두움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내 공의보다 더 컸고 내 사랑이 깊은 긍휼로 어떤 일을 행했고 내 사랑이 너희 죄를 넘겨받고 너희의 죄를 속죄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이웃의 죄짐을 간과해야 하고 단지 이웃이 처한 큰 위험을 봐야 한다. 너희도 또한 내 긍휼을 입었거나 또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 받기 원하면 너희가 내 긍휼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이웃이 위험을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통해 너희 형제를 도울 수 있다면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할 정도로 너희의 사랑이 아주 강해야만 한다. 공의가 나타나기 원하는 곳에서 너희의 긍휼이 역사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예외 없이 너희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내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긍휼을 행하는 일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증거이고 심장이 부드럽고 함께 동참한다는 증거이다. 이런 심장은 항상 내 긍휼을 얻는 일을 계산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순수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는 곳에서 내 사랑이 항상 도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절하는 일이 정당해 보일지라도 너희 심장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자신들의 잘못 없이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에게 사랑을 주고 어떤 도움도 줄 준비를 하라. 그의 운명을 수월하게 해주려고 시도하라. 너희가 이런 일을 통해 응답하는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또한 영적으로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일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왜냐면 그의 혼이 너희의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도록 재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타오르는 곳에 또한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아멘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B.D. No. 7249

1959년 1월 8일

너희는 넘치는 정도로 받아야 한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판단하는 대로 내 약속대로 너희는 판단받을 것이다. 내 사랑은 쉬지 않고 베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원한다. 내 사랑을 너희에게 넘치게 선물한다. 그러나 사랑은 단지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면,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 주변에 너희 사랑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해야 하고 기쁨을 선사해야만 한다. 나는 강박한 심장을 가진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사랑을 벌어들이지 않았고 그러나 자신은 행복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선물해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깨닫는 곳에서 제한이 없이 베풀다. 내 선물은 진실로 인색하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서로 간의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들이 서로 고난을 적게 해주려고 시도하고 이웃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베풀어주려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을 생각해줄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는 다시 판단받을 것이다. 너희가 계산하면서 이제 단지 다시 받기 위해 이런 역사를 행하라는 말로 이 말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만이 행복하게 해주려는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갈망만이 내 눈 앞에 인정 된다. 나는 내 사랑을 같은 크기로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나누어 줄 때에 단지 그의 사랑이 표현하게 하는 사람에게 비취줄 것이다.

내 약속에 세상 재물과 영적 재물, 즉 모든 재물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베푸는 자를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웃들과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재물과 영적 재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재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재물만이 혼의 구원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는 그의 이웃에 대한 처신에 합당하게 내 제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는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 약속을 항상 생각하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측량할 수 없게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먼저 베풀면, 너희 자신이 부족함에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인색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게 베푼다. 다시 말해 너희의 선물과 함께 한 너희의 사랑에 합당하게 베푼다. 너희가 계산하지 않고 너희 자신이 필요한 것을 드리면, 너희는 진실로 불리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빈손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충분한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면, 내 사랑은 제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이런 내 모든 약속을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떠한 고난도 있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너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는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불안해하며 계산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행하면, 그는 큰 축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초기에는 아주 적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베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 내가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 대한 그의 신뢰를 지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단지 기쁘게 해주려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같은 영으로 있기를 원하고 그들도 기쁨을 선물해주기 원하고 자녀가 행한 모든 일에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사랑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흘러가 자녀들도 제한이 없이 목적이 없이 선물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로써 자녀들이 아버지의 선물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깨닫고 모든 긴밀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한다. 자녀들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영원히 아버지의 소유로 머물게 하기 위해 이 사랑이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이끈다.

아멘

권력의 남용....

B.D. No. 0665

1938년 11월 13일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의 직분을 지혜롭게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그가 이제 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주 가능한 한 거창하게 과시하며 이 권세를 행사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둔다. 이 가운데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 전혀 아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잊고 있다.

나의 뜻을 어기는 행위는 그를 판단하는 직분에 세운 분을 확실하게 거역하는 일이다. 전체 집단이 악한 행동을 위해 하나가 되면, 권세자의 죄는 측량할 수 없게 증가한다. 이 권세자가 불의하게 행하는 압력은 큰 책임을 지게 만든다. 이 세상에서 인류를 끔찍하게 만드는 명령을 하는 사람의 날 수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신 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주 오류 가운데 있다. 너희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각각의 혼이 그의 이 땅의 길을 통해 성장하도록 살게 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장이 된다. 셀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을 큰 비참함에 빠지게 만들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라.

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을 수정하고, 나의 판단하는 손은 공의하다. 너희는 절대로 모든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 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짓누르는 일에 너희의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지혜롭고 온유한 심판자로 행하여, 언젠가 너희도 너희의 행함으로 인해 부드럽고 지혜로운 보상을 받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저 세상에서 말할 수 없게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 너희를 기다리는 너희의 운명을 너희가 알면, 너희는 끔찍함으로 인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베풀어지는 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라.

나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의 법을 어긴 그의 지시의 결과가 놀라움과 비참함과 끔찍함의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심판해야 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가 당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갔는지, 누가 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기 원하였는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면 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저항하고, 이 땅에서 사랑 없음과 불의한 가운데 역사하고 일한 사람들에게 더 강한 징계를 할 것이다. 사람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생각대로 너희의 심판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너희에게 절대로 축복을 줄 수

없는 비인간적인 끔찍한 심판을 사람들에게 내리면, 나의 생각대로 너희의 심판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행하는 일은 단지 복수와 심판이고, 공의롭게 너희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어떻게 너희의 권세를 높일까 하는 생각에 머물고, 너희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로써 너희는 나의 눈 앞에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일은 최악 되고, 경멸을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 실제 인류의 육체적인 행복을 위해 유익을 끼친다. 그러나 사랑과 공휴이 너희의 행하는 방식의 동인이 되지 않으면, 너희의 혼은 가장 어두운 밤으로 멸망을 받는다. 너희가 짓누른 사람들의 비참함이 너희 자신에게 천 배로 임할 것이다.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이 권세를 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폭력적인 일을 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미움과 그의 영향.

B.D. No. 2810

1943년 7월 12일

증오의 악한 영은 전 세계를 독을 살포하고, 사람들은 악한 영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미움은 파괴하는 반면에 사랑은 건설한다. 인류 사이에서 미움이 더 많이 역사할수록, 이 땅에서 파괴하는 역사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하나님의 파괴하는 역사도 이런 증오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단지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자신들을 지배하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다수는 계속해서 미움 속에 살고, 미움이 낳는, 미움을 더욱 부추기는 수단으로 항상 자신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한다.

왜냐하면 증오는 사랑 없음이 증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증오는 가장 끔찍한 성품이다. 왜냐하면 증오는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증오를 통해 모든 고귀한 본능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증오 속에 사는 사람은 악마에 의해 이리 저리 끌려 다닌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단지 미움과 사랑 없음을 전파시키려는 권세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권세는 크다. 모든 인류가 증오 속에 산다면, 그런 권세는 이제 더 커진다.

이런 일은 영적인 퇴보를 의미해야만 한다. 영적인 퇴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의 세력이 그들에게 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파괴하는 일을 자원하여 수행하는 점에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관심사는 창조물 안에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과 노력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성된 것을 파괴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으로는 창조의 역사를 붙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심어 줌으로써, 자신이 불가능한 일인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사람들이 수행하게 이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자신의 도

구로 만들고, 그들 안에 사탄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들 안에 증오를 불러 일으키고, 서로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도록 이끈다. 사람들은 혼의 가장 큰 적이 그들의 혼에게 주는 대로 자원하여 실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항상 새로운 증오와 항상 새로운 파괴적인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중독된 인류는 점점 더 멸망을 향해 다가 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을 행하는 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역사의 결과.

B.D. No. 3300

1944년 10월 20일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타락한 존재를 도와 깊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맞게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고의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창조물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만든 것들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들이 높은 곳을 향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다시 유용하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창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이나 다른 창조물들을 섬겨, 존재들이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물도 사명을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런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과정을 중단시키는 일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옳다 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물질을 파괴하던 모든 파괴도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옳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섬기는 기능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물을 만들기 위한 파괴는 이웃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파괴는 불법 행위요, 이웃에 대한 불법행위요, 진실로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로 창조한 하나님의 대한 불법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무섭게 복수한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없음과 미움의 충동으로 파괴하는 일들로 인해 사람들 자신이 당해야만 하고 또한 순전히 물질적인 측면으로도 또한 당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잃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잃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특별하게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찍이 자유롭게 되어 자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특히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혼의 눈앞에 나타나면서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잃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혼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 혼에게 큰 해를 끼친다. 혼은 영적인 추구를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혼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인 것을 향하게 될 것이다. 창조물이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희생되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창조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이 만들었던 건설적인 일을 하려는 모든 창조물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파괴하려는 원칙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현재 세상에서 분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을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 안에 파괴하려는 욕망을 깨어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창조물의 목적과 의미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파괴하는 역사에 대항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더 큰 파괴의 역사는 단지 그의 사랑에 근거한 역사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섬기는 과정을 가길 원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끝없이 긴 감옥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은 굳은 물질이 부드러워지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제한을 가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피조물이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성장할 수 있고 피조물을 성장 수단으로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파괴의 역사를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괴하는 역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든 창조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건설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높이 성장하는 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질서이다. 사람이 창조한 모든 작품이 섬기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섬기려는 의지에서 나오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보장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서이다.

아멘

사람이 종말을 스스로 결정한다. 저조한 상태.

B.D. No. 3625

1945년 12월 12일

영원한 내 결정에 의해 영원으로부터 종말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영적인 저조한 상태가 종말이 오게 한다.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그들이 스스로가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때가 종말 전에 먼저 온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중단되는 곳은 즉 내 사랑의 힘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중단되고 행함이 중단이 된다. 영적인 존재들은 굳어지는 상태에 빠진다. 이는 자신을 단음으로 능력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람으로써 사람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종말의 때에 이 힘을 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여 나를 추구하는 대신에 자유의지로 전적으로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나는 삶의 힘을 그로부터 빼앗아야만 한다. 이런 일은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영의 존재들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일을 의미한다. 이로써 그들의 마지막 성장의 형체를 빼앗기고 다시 전적으로 굳어진다. 즉 내 사랑이 그에게 다시 형체 안에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형체를 줄 때까지 무능력과 어두움에 빠진다.

존재들은 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로써 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지의 단계에 있는 동안에 그의 의지에 반대하여 그에게 힘을 제공할 수 없다.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는 초기에 그는 실제 의지가 약하고 그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삶의 힘을 모든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조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 생명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의식적으로 나로부터 온 힘의 공급을 거부한다면, 나는 그

에게서 생명의 힘을 빼앗아 간다. 그들은 성장과정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하고 다시 전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로 굳은 형체인 굳은 물질 안에서 이를 극복하는데 끝없이 긴 시간이 요구되는 성장과정을 시작해야만 한다.

나는 존재들이 이런 긴 기간 동안의 포로생활을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이 전에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내 종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위험을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불신의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직전에 있는 종말에 관심을 갖게 해주면, 그들은 그들의 귀를 닫고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내 끝없는 사랑을 믿지 않고 스스로 짧은 시간 내에 종말이 다가오게 만든다. 그들은 단지 영적인 저조한 상태에서 머물 뿐만 아니라 항상 더욱 깊이 저조하게 된다. 그의 의지가 사람을 그의 혼이 이미 오래 전에 극복한 것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그의 의지가 자신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가 분해되는 일을 재촉한다.

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가 스스로 종말을 정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의지를 영원으로부터 미리 알았고 그러므로 나는 그를 다시 묶는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내 사랑을 알고 그는 영적인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구원계획을 알고 종말을 미리 본다. 왜냐면 그가 영적인 위험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는 아직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어둠으로부터 낮의 빛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를 위해 그에게 내 말씀이 필요하고 밝게 비추주고 그의 지식을 증가시켜주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큰 영적인 위험에 기인한 이 땅의 위험한 때를 이해한다. 내 말씀을 가진 사람은 깊은 믿음으로 종말을 기다릴 것이다. 왜냐면 내가 말씀과 기록을 통해 선포한대로 모든 일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종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진 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위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제공자인 내가 모든 사랑으로 너희에게 전해주는 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나로부터 나왔고 전적인 진리라는 보장을 해주는 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로써 너희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으라.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게 하라. 너희가 너희 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긴 성장과정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할 필요가 없게 하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대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종말의 때에 해를 당하지 않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B.D. No. 7482

1959년 12월 20일

너희는 비록 너희가 스스로 잘못했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너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공
흘이 없는 재판관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비록 모든 심판에 내 공의가 나타나야만 할
지라도 그러나 내 사랑이 모든 경우에 가볍게 해주게 변호하고 너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용서해주는 일 외에는 올바르게 세워주는 일 외에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죄
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 손길로 다가가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불
행, 혼의 모든 아픔, 모든 고통과 고난은 혼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혼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지로 심판한 것이다.

혼이 스스로 혼이 처한 현재의 상태를 만든 것이다. 혼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길
원하지 않으면, 내 공의가 혼을 그가 스스로 만든 끔찍한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막는다. 혼은 실제 재판정에 있다. 그러나 혼 스스로 심판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내가 죄인들에게 속죄로써 이런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고 혼이 이런 별받는 상태를 자유의
지로 추구해 만들었고 내 공의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운명보다 더 나은
운명을 줄 수 없음을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항상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죄를 지은 혼들이 처한 고통을 나는 공홀히 여기고 내 사랑은 진실로 그들에게 더 나
운 운명을 주길 원하다. 그러나 이는 다시 내 사랑과 내 공의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자유의지
에 달려 있다. 혼이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도움을 구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
에 혼이 스스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해야 하고 원해야만 한다.

이 것이 혼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내 공홀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
도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 내가 내 공홀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 끝이 없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벌을 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사람들이 내 대적자의 영향으로 활개를 치며 전적으로 하
나님에게 대적하면서 사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인류가 거하고 있는 잘못 된 방향을 향한 상태
를 그리고 모든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잘못 된 방향을 향한 상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내 공홀이 여기는 사랑이 다시 개입하여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운다. 그러나 인간으
로 실패한 영적인 존재에게 그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만든 운명 외에 다른 운명을 줄 수 없다.
이는 비록 심판이라 할지라도 내 분노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나는 가장 깊은 공홀로 영적인
존재들을 새롭게 형체 안으로 파문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축복된 운명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도 축복된 운명을 앞두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도 자유의지로 나에게 의식적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있고 거부받지 않고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을지라도 내 공의도 내 속성에 속해 있어 내 공의가 때가 되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연합이 되라는 경고.... 온화함.... 사랑....

B.D. No. 0548

1938년 8월 16일

이 땅에서 서로가 연결된 너희는 너희를 이해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간에 염려를 나누고 서로 간에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 같은 그의 사랑의 피조물들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는 너희의 온전함을 위해 주어진 길에 너희를 위한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간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너희가 사랑을 심는 곳에서 너희는 더 많은 사랑을 수확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모든 심장이 사랑하며 너희에게 향할 것이다. 이는 너희에게 매번마다 너희 자신을 극복하는 일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너희 혼에게 주는 유익은 무한하게 가치가 크다. 이웃사랑을 행해야 하고 이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너희가 이웃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너희 자신의 능력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랑 안에서 살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으려고 하라. 스스로 사랑이 없게 만드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성품은 단지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너희 스스로 항상 단지 사랑을 주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너희가 판단 받지 않기 위해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이웃 사람을 판단할 위험에 빠지게 되면, 너희는 이러한 적은 몇 가지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온유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웃 사람들을 가장 큰 인내와 온화함으로 대하고 판단하는 직분을 주님께 맡길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권세를 깨닫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 짐을 가장 깊은 겸손으로 견딜 수 있도록 유일하게 주님이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은 단지 가장 큰 사랑으로 너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과제를,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간과하고, 단지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과제를,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유일하게 이웃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연결시키는 과제를 성취시켜야만 한다.

너희가 항상 단지 진정한 사랑이 동인이 되게 하면, 너희의 모든 노력은 성공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면, 이 사랑은 좋은 밭에 떨어져, 다시 사랑을 깨어나게 할 것이

다. 그러나 평화가 없는 곳에서 절대로 사랑이 싹틀 수 없고, 악한 권세가 더욱 영향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자체인 분과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랑 없음을 피하려고 시도하라.

아멘

정의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B.D. No. 1869

1941년 3월 30일

사람 안에 정의감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랑이 없어 보이는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자신이 고귀한 것으로 느끼고,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허용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신과 자기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도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만 모든 결점을 찾고, 자신은 결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행위를 고귀한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잘못이다. 모든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신 안에 한가지 결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가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는 이런 행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판단하기에 무능하다. 이런 사람은 정의감이 부족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행동은 항상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의 작은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어떤 높은 수준의 서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고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책망할 만한, 어떠한 권리가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가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으로 인해 비판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한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감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빠르게 비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해 이해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는 진실되어야 한다. 그는 일어난 상황을 상황대로 보아야만 한다.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잣대로 재기 쉽고, 이로서 모든 정의로운 생각과 판단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해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이다. 그러할 때 사람이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남의 행동방식을 불의하게 판단하며, 자기 자신은 고귀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의 재판관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멘

1944년 8월 20일

한 나라 전체가 생각하는 일과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 전체의 체면이 손상된다. 한 민족은 자신의 나라에 속한 이웃에게 책망할 것이 없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대해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켜야 한다. 비록 각각의 구성원들의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한 모든 느낌과 원하는 일이 고귀하고 예의가 바라야 한다. 공의로운 느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민족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른 민족에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의와 공의를 행사해야 하고, 특정한 인종이나 국가에 속한 것이 그들을 대하는 행실을 정하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의 계명을 줄 때,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왜냐면 모든 이웃사람을 형제로 대해야 하고, 형제라는 감정으로 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 자신이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그들에게는 이웃 사랑을 제외시킬 권한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구별을 두지 않고 이웃 사랑을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 계명을 어긴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지 선명하게 돼야만 한다. 그는 마음대로, 자기 옳은 생각대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는 한 민족에 대해 죄를 지을 수 없고, 그가 자신이 이 인종과 민족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계선은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 의와 불의는 항상 모든 곳에서 의와 불의로 남는다.

사람이 이웃 사람을 제외시키는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이 혼돈되어서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의롭다고 믿는다면, 그는 이미 영적인 성장에서 깊게 타락한 사람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영적인 성장보다 이 땅의 삶을 더 높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서 나온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갈망하는 일을 거절하지 말고, 이웃 사람에게 허용해야만 한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베푸는 정도로, 받기 원한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이 만든 법칙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멘

1944년 8월 22일

이 땅에는 가장 서로 다른 민족들과 인종들이 있고, 그들의 성장 정도는 대부분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도 자신 밑에 있는 다른 민족을 압제하거나 또는 그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들이 높은 영적인 정도에 있다면, 그들은 실제 양육하는 역사를 해야 하고, 강한 압제자의 대항하여 연약한 민족을 도와야 한다. 특정한 민족에 속했기 때문에 이웃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명심해야 하고, 어떠한 이웃 사람들을 민족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거나, 또는 그들을 공격하여 위험에 빠지게 할 권리가 사람에게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들 스스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이웃사람에게, 그가 어떤 종족의 사람이건 상관없이, 심하게, 사랑이 없게 대한 사람은 단지 심하게, 사랑이 없게 대접받는 일을 거둘 것이다. 그는 공허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는 절대로 가벼운 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그의 생각한대로, 그의 의지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공의로운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공의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권리를 요구한다.

자기 사랑이 강하면, 공의에 대한 느낌이 약해진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을 위해 비양심적으로 이웃 사람의 것을 요구하고, 이런 생각이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땅에 절대로 평화가 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짓누르거나 또는 강한 민족들이 서로 간에 똑같이 고난과 비참함을 서로에게 줄 것이고, 위험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랑이 없는 행동도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게 다른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핑계로 올바르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종족의 사람들에게는 보장되는 인간적인 고려를 다른 민족에게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핑계로 어떤 사랑이 없는 행동도 올바르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같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지속적으로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는 똑 같은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웃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고려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다.

전체 민족의 생각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오류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불의가 지배적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싸우는 상태에 머물 것이다. 원수 맺는 일이 항상 더욱 새로운 후원을 받을 것이고, 항상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로써 죄악되게 행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신의 갈망에 항상 기준이 정해져야만 하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금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불의는 항상 증가할 것이고, 이로써 사람들의 생각이 혼돈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능력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옳다고 공의롭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웃을 향한 공의. 하나님의 질서.

B.D. No. 3906

1946년 10월 17일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한다면, 너희도 모든 일에서 공의해야 한다. 너희의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나의 영원한 질서에 합당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나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너희는 너희 이웃사람들에게 보장해야만 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똑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웃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 원하는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이웃사람을 생각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요구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고, 베풀기 원하면, 너희

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내가 너희의 이웃에 대한 자세에 합당하게 너희를 도와준다는 것을 너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공의를 확실하게 체험할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나의 질서를 어기며 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생각과 행함의 불의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과 행함의 불의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너희 자신이 느끼고, 너희가 나의 질서 안에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요동을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그의 불의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불의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공의는 언젠가 나타나고, 그러면 나의 질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는 저 세상에서 또는 고통이 충만한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당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공의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속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최고로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공의해야만 하고, 사람이 악마로 변질되면, 세상에서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면, 그들을 심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의 공의는 아직 숨겨져 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세상에서 생각으로 그리고 사랑이 없는 가장 극심한 행동으로 행해지는 아주 큰 불의에 나의 얼굴을 돌리고 있고, 겉보기에 나는 이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 일은 영원한 책에 기록된다. 어떠한 불의도, 자신을 개선하기 원하는 가운데 아주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속죄가 따르지 않는 법이 없다. 심판의 날에, 내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나는 날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이나 행한 것을 내 앞에 숨길 수 없는 날에,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의 공의 때문에 나를 찬양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책임을 묻는 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인류가 항상 더욱 악해지고, 죄 위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그들의 모든 속죄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 그러나 나는 나의 사랑과 긍휼이 물러나고, 공의가 역사하기까지, 정도가 차고 넘쳐야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사탄에게 그가 이 땅에서 역사하도록 보장된 시간이, 이 기간 동안 모든 혼들이 나를 찾고, 나의 지원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간이, 영원으로부터 정해졌기 때문이다.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매일이 은혜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을 영원한 기간 동안 흑암으로 이끌어드릴 더 큰 가능성을 대적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은혜의 때를, 이러한 권세가 분노하는 때를 끝낸다. 그러면 공의로운 판결이 이뤄질 것이다. 이 전에 자유의지로 처벌받지 않고, 분노한 죄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가장 깊은 어두움에 빠질 것이다.

아멘

너희는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이 일에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간에 사랑해야 할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에는 사랑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에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너희 자신이 심판해서는 안 되고, 진실로 공의로운 재판관인 나에게 심판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사랑을 느끼는 일은 실제 어렵다. 너희 모두가 단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모두를 창조했음을 생각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영원히 모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잡힘 받은 것을 알고, 사랑으로 돌봄받는 것을 느끼고, 너희를 항상 보살펴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또한 내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 이웃에게 사랑이 없이 행하고, 사랑이 없이 생각하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 혼이 있고, 이 혼이 또한 자주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 하다. 왜냐면 바로 이런 사람은 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런 혼의 위험을 보면, 너희 안에 단지 사랑의 불씨라도 있다면, 가장 깊은 공황로 혼을 돕기를 원할 것이고, 너희가 이런 혼의 위험이 줄어들게 해줄 때까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혼을 보고, 너희가 이런 혼을 가진 사람에 대해 더 이상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전적으로 눈이 먼 사람처럼 그를 돕고, 그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잊게 될 것이다.

이웃이 너희 안에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없다면, 너희는 항상 이웃의 혼을 생각해야 한다. 혼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고, 나는 아론 모든 혼들을 공황히 여기고, 혼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에 간섭을 할 수 없고, 혼이 스스로 그의 길을 가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혼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주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가 자신 안에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있고, 이로써 그의 큰 영적인 위험을 줄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권세가 없는 곳에서 너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너희가 아직 죄에 묶여 있는 너희 이웃을 이미 성장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너희는 공의롭게 생각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내 은혜가 너희를 도왔기 때문이다. 내 은혜는 또한 아직 지하에 있고, 내 대적자가 아직 묶고 있는 존재들을 돕기를 원한다. 너희는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야 하고, 너희는 길을 잃은 자녀들이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너희 자신이 내 사랑과 내 은혜로 찾은 것을 그들이 찾도록 도와야 한다.

아멘

복수는 나의 일이다.

B.D. No. 1029

1939년 7월 29일

“복수는 나의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일에 열심을 드려야 한다. 너희가 당한 불의를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불의를 당하고, 절대로 복수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다. 그의 의지는 자신의 보상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불의를 물리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은 혼을 말할 수 없게 성장하게 한다.

불의를 인내하며 스스로 감당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원수를 생각하는 일은 실제로 아주 어렵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축복이 충만한 일이다. 사람은 모든 복수하려는 감정이 혼을 어둠으로 감싸게 한다는 것을, 이웃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악한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의 혼은 절대로 빛이 되고, 선명하게 될 수 없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게 사랑이 없는 감정이 나타나고, 이로써 영적인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런 생각을 자신 안에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사랑을 행할 수 없다. 원수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모든 원수의 관계를 극복해야 만한다. 왜냐하면 모든 원수관계는 대적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웃과 원수 관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에 대한 아주 많은 권한을 대적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모든 미움과 복수하는 감정을 심장으로부터 몰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이 다른 더러운 생각들을 이끌어 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경건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가진 사람은 단지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돌보고, 모든 불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을 주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야 만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님 만이 유일하게 양쪽 편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무엇을 통해 원수관계가 생기게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 겉으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잦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런 덕스럽지 못한 일을 세상으로부터 물리치려는 시도를 해야 만한다. 사람이 단지 두려워하며, 싸움을 피하는 일로 충분하지 않다.

그는 스스로 이웃 사람에게 가능한대로 맞춰주려고 시도해야만 하고, 원수의 감정을 반대로 바꾸려고 시도해야 만한다. 이런 의도가 성공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내적인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모든 미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가 그 대신에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적으로 만족하는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능한 곳에서 사랑의 무기를 통해 그에게 일어난 모든 불의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분노와 복수하려는 충동과 반격하려는 충동을 무력화시킨다.

사랑이 불의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감정을 약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절대로 복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추구하는 일은 영적인 온전함이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먼저 모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사라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을 극복하고, 심장을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변화시키는 곳에서 주님이 거할 것이다. 그런 일은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인내를 행사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혼이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수와 반격을 행하는 일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은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의 법에 따라 보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도 서로 간의 사랑을 행해야 하고, 항상 계속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야 한다. 주님은 너희 이웃사람들의 사랑 없음에 대해 너희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는 일에 대해 경고한다.

아멘

"복수는 내 일이다..."

B.D. No. 1753

1940년 12월 27일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내면의 악한 갈망을 따르는 것이고, 이제 심장의 내면이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이 없는 감정은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나 내적인 싸움은 성장에 도움이 된다. 사람이 이웃 사람과 적대의 관계에 있다면, 이웃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자신을 악한 권세에 바치고, 그는 이제 항상 사랑 없음을 더욱 증가시키려는 악한 권세의 뜻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이로써 그의 혼은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가 한번 원수의 요구를 따른다면, 사랑을 행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복수하려는 생각이 자신의 느낌에 독을 주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이 그에게 행한 피해는 이제 그가 자신에게 행하는 피해보다 훨씬 더 적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이 불의를 행한 것은 그의 육체에 해를 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혼에 해를 끼치고, 사랑이 없는 행동을 통해 혼을 새롭게 사슬로 묶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복수심을 만족시켰다는 감정 외에는 다른 유익이 없고,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에게 바치고, 이제 다시 사랑을 행하는데 가장 어렵게 되고, 단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할 때 비로소 다시 사랑을 행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기뻐하고, 후회하는 상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람은 선으로 악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악의 권세를 약하게 만들고, 사랑을 얻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또한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원수를 자유롭게 만든다. 왜냐하면 원수가 전적으로 강박하지 않다면, 그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행동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으로 느끼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직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는 진실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한다. 그는 사람의 심장을 보고, 그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그의 뜻은 사람들이 개선되게 만드는 일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반항하거나 또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 사람의 불의를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복수는 나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한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복수하는 직분을 넘기라는 자신의 뜻을 알려 주고, 이웃사람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너희가 너희 혼에게 끼치지 않게 한다.

아멘

정죄와 속죄. 영원한 질서.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B.D. No. 4837

1950년 2월 14일

이 땅에는 선과 악의 모든 역사에 대한 보응이 있다. 너희가 상급이 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형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너희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고 돕고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위해 선을 행하고 악이기 때문에 악을 혐오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내 뜻이고 영원으로부터 나의 질서에 합당한 일이다. 축복되기 위해 나의 영원한 질서 안에서 사는 일이 영의 법이고 따라서 이 땅의 나라의 법이다. 이런 질서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불행한 상태에 있고, 그에 합당하게 심판을 받고, 그는 마찬가지로 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를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속하게 된다.

존재가 원하면 그 안에서 불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존재가 이 땅을 떠났다면, 존재에게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반면에 존재는 이 땅에서 더 쉽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고, 자신의 불의를 속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잘못은 속죄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너희가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끊임없이 너희에게 설교해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인 복음을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의 불의를 깨닫고 선한 행실을 통해 불의에 대해 속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질서의 법칙으로 머물게 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한다.

보응이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속죄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면, 너희는 너희를 행복한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면 저세상에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는 일이 아주 어렵고, 너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땅에서 너희는 너희의 죄짐을 위해 죽은 분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항상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속죄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 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 자신이 죄를 혐오해야만 하고, 내 뜻대로 너희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 하고, 나의 영원한 질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아멘

노후 은 위치에 있던 낮은 위치에 있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젊은이거나 노인이거나 너희 모두가 언젠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너희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결산하는 심판의 날이 오고 이제 너희의 혼의 상태와 혼의 계속되는 운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죽음 후 혼이 사는 일을 의심하고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지라도 너희는 또한 이런 마지막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는 꼼짝하게 놀라는 가운데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너희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죽음 후에 계속 사는 일을 부인한 사람들 중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들의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은 곧 그들의 영적인 위험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며 돕는 존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고 사랑을 적게 행한 사람은 심판의 시간이 쓰라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를 기다리는 운명이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힘이 없고 빛이 없고 무기력한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어두움 속에서 생존하게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존엄한 위치에 있었을 지라도 이에 상관없이 어떤 혼도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영적 옷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육체를 돌 보았지만 혼은 돌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벌거 벗은 상태로 가난하게 저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 저세상의 나라에서 그들을 수월하게 해주는 걸형체를 만드는 일은 아주 어렵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혼들이 걸형체를 만들려는 의지를 가질 때까지 자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혼이 스스로 변화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에 혼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자주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가가고 있는 자신들의 마지막과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책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직면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죽음 후에 그들의 상황에 대한 적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았던 모든 힘이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 땅에서 혼을 온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저세상의 영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일은 주는 일이고 돕기를 원하는 일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혼은 아주 가난하게 도착하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혼 자신이 불행해서 행복을 나눠줄 수 없고 자신이 가난하고 비참하여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뿌린대로 언젠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공로에 따라 받게 된다. 모든 혼은 자신이 이 땅의 과정을 통해 만든 운명을 받아드려야만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때가 오고 모든 혼에게 자신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신이 자신을 심판한다.

B.D. No. 5950

1954년 5월 6일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을 심판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지가 생명이나 또는 죽음으로 인도하고 나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죽음을 택하면, 그들의 뜻에 따라 죽음이 임한다. 그러나 영원한 질서의 법칙은 유지된다. 이 법칙은 내 성품에 합당하다. 즉 내 사랑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런 영원한 질서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또한 사랑이 역사하게 할 것이고 이로써 생명을 택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사랑을 통해 축복된 삶을 보장하는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고 그러므로 영원한 질서 밖에 있고 이로써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한 것이다. 왜냐면 죽음은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사랑이 없이 살고 이로써 내 영원한 질서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혼들이 처해야만 하는 상태이다. 사람이 어떤 운명을 선택할지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내 질서의 밖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한다. 이로써 그들이 생각하게 하고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운명을 만들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것이 주어지는 때가 되면, 그들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맞이해야 하는 끔찍한 운명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그러나 나는 내 공의가 허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가 다시 내 영원한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면,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내 뜻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는 일이고 그들이 죽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일이다.

내 뜻은 그들이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나로부터 능력을 받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들이 단지 내 사랑의 흐름에 영역에 들어서면, 즉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어 이제 빛과 능력을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되면 가능하다. 나의 의해 자신을 비추이게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흐름의 영역 밖에 거하는 사람은 내 사랑의 비추임을 영접할 수 없고 그는 연약하게 머물고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에 빠진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심판한 것이다. 단지 질서 안에서 사는 삶과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사람에게 힘을 보장하고 그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더 이상 버림받을 수 없게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런 생명을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만 한다. 너희가 떨림이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대비하라.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기뻐하면 바라보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이 말은 심각한 권고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의 뜻을 지키지 않고 너희의 미지근함과 저항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언젠가 너희의 후회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에게 아직 너희 자신을 바꿀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올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 계속하여 이 땅의 과제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너희가 이해하게 해주고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모든 종류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 너희가 진지하게 원하면, 너희는 아직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는 너희의 시간이 오면, 너희에게 책임을 묻는 시간이 오고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어떤 일도 되돌릴 수 없고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행했거나 놓친 일을 만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고 모든 죄가 드러나고 너희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어둠 속에서 살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해 이런 상태를 스스로 만들었다.

하루를 부주의하게 살지 말라. 너희가 단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창조주의 변덕으로 임의대로 존재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목표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서 질서를 벗어난 모든 것을 다시 영원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온전하지 못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성취시키면서 다시 온전하게 되면, 너희가 단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주었다. 왜냐면 하나님의 질서의 본질인 사랑이 너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주었고 이로써 너희가 이 땅의 삶의 지침을 갖게 했고 너희가 이제 삶의 지침에 따라 너희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다.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이 단지 그의 뜻이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계명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로써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이 기뻐하면 너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너희를 위한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고 너희는 자유롭고 평안하게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에서 들려주는 훈계를 따르라. 너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아직 멀다고 생각하여 미지근하게 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살라.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언젠가 사랑이 단지 다스리고 사랑이 무한하게 축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B.D. No. 6952

1957년 10월 22일

 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완성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그는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삶을 혼에게 전혀 축복이 되지 않게 살면, 이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이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이를 실제 벌받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자신의 잘못 된 삶의 방식에 결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벌받는 상태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이런 상태를 했다.

왜냐면 그에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산대로 그들을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함을 단지 희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사라질수록 사람들의 책임감이 없는 상태는 항상 더욱 증가한다. 실제적인 이 땅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 육체의 죽음 후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혼이 자신의 불쌍한 상태를 의식하고 이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끔찍한 놀람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항상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경고해줄 수 있다. 그에게 항상 단지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그가 믿게 강요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통해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삶이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는 활용돼야만 한다 왜냐면 이 은혜는 자신을 잘못 형성한 한 때 가졌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는 존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의 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롭게 자신의 사랑의 힘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힘을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혼에게 제공한다. 사람은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이 은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는 한때 거했던 높은 곳으로 다시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을 감사하며 영접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책임감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 은혜는 그에게 단지 한번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가 멸망을 받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다시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은혜를 선물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깨달으면, 언젠가 저세상에서 그의 후회는 크게 될 것이다.

아멘

빛의 직분. 책임.

B.D. No. 7095

1958년 4월 17일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의 길 가운데 나타나고 너희 관점이 나에게 향하게 조용하게 접촉했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운명적인 일이나 또는 고난과 염려를 통해 느낄 수 있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나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너희 모두를 나를 위해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나에게 이끌 수 있기 위해 이런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형태로 내가 낮은 소리로 해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그들이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키게 하기 위해 내 말을 통해 말한다. 그러나 내 말이 그들의 심장 안에 들어갈지 또는 그들의 귀를 스쳐 지나가게 할지는 그들의 자유이다. 나는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내 구원을 받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를 지나쳤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가 단지 열린 눈과 열린 심장으로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일을 살피면, 그의 삶에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인도를 한번도 체험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도 그가 아직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의 자유가 그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게 분명하게 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내 인도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을 부인하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을 우연이나 또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과정이라고 여길 자유가 있다. 왜냐면 이런 자유는 그에게 보장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가 나에게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지는 유일하게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젠가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그는 내 편에서 주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그는 모든 선명함으로 내가 얼마나 자주 그에게 가까이 다가 갔는 지를 깨닫고 단지 그의 의지가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을 막았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양심이 없이 그의 이 땅의 삶을 살면, 영원한 자신의 심판장 앞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언젠가 온다. 그의 성장 정도는 그의 의지에 합당하다.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영원 가운데 그의 운명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 그가 속한 곳으로 간다. 그는 심판을 받는다. 그는 이 법칙에 복종해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항상 다시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내 "판결의 직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를 아직 이 땅에서 이런 질서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랑이 단지 나를 움직이게 한다.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강요를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다시 말해 그의 혼을 심판하면, 이는 다

시 단지 내가 행하는 사랑의 역사이다. 왜냐면 그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내가 진실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혼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특별히 위험하다.

그들이 계속하여 그들의 영을 통해 부드럽게 주는 영향에 거부하면, 또는 나 자신이 영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기 원할 때 모든 말을 거부하면, 그들의 혼은 어려운 운명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비록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을 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순간을 갖는다. 이런 생각이 그를 항상 어떤 불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생각을 마찬가지로 빠르게 다시 거부한다. 다시 말해 혼이 혼 안에서 들리는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하라는 나지막한 음성을 저항하는 이런 거부하는 순간에 그의 의지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해 일한 것이다.

그러나 혼은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을 따르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생각에 머물면서 나에게 단지 큰 소리로 혼에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려운 운명적인 일들 가운데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할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지식이 그에게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다시 그의 자유의지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이 불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거부당한 내 사랑은 언젠가 내 공의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나에게 귀환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존재는 자신의 성장에 합당한 곳으로 가야만 한다. 나는 의와 공의로 심판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나는 원래의 법칙이고 원래의 법칙으로 남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만 한다.

아멘

종말의 때에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심.

B.D. No. 8219

1962년 7월 21일

결산의 시간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심판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온다. 왜냐면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각자가 영원한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공의에 의해 판결을 받을 것이다. 각자의 혼들이 자신 스스로 준비한 운명을 체험할 것이다. 형체 안의 거하는 과정들을 거친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성장 정도에 합당한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옛 창조물은 분해가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그들의 형체는 다른 방식의 창조물로 바뀌어 지게 된다. 구속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은 다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또는 자기의 영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다시 형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도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기쁨과 욕망을 따라 행한다. 너희의 행위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곧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뜻에 따라 이를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너희 혼을 싸고 있는 걸 형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서 너희는 점점 더 물질에 빠져 들게 되어 이제 전에 너희가 극복을 했던 물질이 다시 될 것이다.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 이제 다시 성취돼야만 한다.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산 영적인 존재들이 새롭게 다시 형체로 빚어져야만 한다. 성장 과정이 중단된 데서부터 지속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서 실패한 영적인 것에게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에 다시 동참하게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끔찍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항상 단지 인간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의 혼이 다시 물질 안으로 또 다시 파문되어 그가 다시 인간의 상태로 될 때까지 다시 끝없이 긴 창조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언젠가는 그도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모든 형체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자신 스스로 마침내 구속되어 빛의 나라에 갈수 있을 때까지 이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게 오래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이 올바른 의지의 결정을 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기간도 끝이 나게 되고 그의 공의가 드러난다. 그는 다시 옛 질서를 회복한다. 이는 영적인 존재들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들의 성장 정도에 합당한 형체를 입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심판이 동시에 이 땅의 한 시대 또는 구원시대의 끝이다. 이 때에 이 땅의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창조물들의 파괴가 일어난다. 이들은 의무상태에서 자신의 발전과정에 있거나 또는 이 땅의 삶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전혀 활용하지 못해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영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 굳은 물질 안에 다시 들어가 만들어지게 된다. 너희 사람들은 이것이 믿을 만하건 믿을 만하지 않던 간에 이 옛 지구의 종말 직전에 서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질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게 암시를 항상 또 다시 받는다. 사랑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이 원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보는 자와 선지자를 통해 가까운 종말의 암시를 받게 되고 너희의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존재 목적을 생각하라는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종말을 놀라며 맞이하고 전적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적인 죄는 마지막 형체 안에서 즉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너희가 너희의 원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구속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음으로 사함을 받지 못한 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만이 너희의 모든 죄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이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고받을 수 있다. 너희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의 거하는 것을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와 교환할 것이다. 너희는 복된 영들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옛 지구의 종말과 새로운 파문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영원한 하나님은 가혹한 심판자가 아니라 공 의로운 심판자로서 너희 모두를 너희의 자유의지에 맞게 대해 주실 것이다.

사랑의 정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정도를 평가한다.

B.D. No. 4574

1949년 2월 27일

너희는 모든 생명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해 사라지지 않는 부를 창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이웃 사랑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영원을 위한 혼의 구원이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혼의 구원이 영원을 위해 보장을 받는다. 내가 하는 이런 요구가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힘을 넘어서 행할 수 없는 일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 일상적인 너희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 작은 사랑도 느끼지 않고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부터 나온 사랑에 이끌려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일이 날마다 행하는 의무적인 일이지만, 나는 그런 행동을 다르게 평가하고, 혼의 성장정도를 높여준다.

사랑은 모든 것이고, 사랑이 모든 역사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올바른 성품에서 아주 의무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단지 육체의 역사이고, 단지 세상적인 보상을 받고 영적인 부는 얻지 못한다. 왜냐면 영적인 보상은 어떤 의무적인 일을 수행하던 시간에 단지 사랑의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력을 너희가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한다면,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우려는 의지로 너희가 너희의 일을 행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자유의지가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은, 비록 이 일이 영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단지 세상을 위한 일이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일하도록 요구받는 일 자체가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이고, 이 일을 의무에 따라 행할지라도, 이 일은 나에 의해 순전히 세상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왜냐면 심장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심장을 보고, 경건한 말이나 표정에 속지 않고, 심장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 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도움을 주려는 의지로 인간의 요구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의무적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내면의 기쁨으로 의무적인 일을 자발적인 일로 바꾸고, 자신의 삶을 영원 가운데 그에게 가장 풍성한 임금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그가 진실로 이 땅에서 영적인 재물을 모으고, 가난한 가운데 영의 나라로 들어 가지 않을 것이고, 그의 사랑이 그를 이끄는 곳에서 힘이 충만한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힘이 없고 가난한 가운데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단지 세상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섬기는 이웃 사랑이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일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된 적이 전혀 없고, 단지 부지런히 의무를 완수하는 가운데 자유의지로 세상의 요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의무에 순종해서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일과 동일한 작업이 완전히 서로 다른 성공을 하게 될 수 있다. 행한 일로 순전히 세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행한 일로 사라지지 않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후자의 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지 않은 일을 저세상에서 절대로 다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의 삶의 상급은 저 세상에서 축복된 삶.

B.D. No. 4890

1950년 5월 5일

이 땅에서 내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축복된 운명이 주어진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가 행하는 것처럼 서로를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계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왜냐면 올바른 사랑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랑으로부터 나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랑이 너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다.

너희의 성품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고, 너희의 성품이 나로부터,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 때의 존재처럼 다시 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원래의 고향인 영의 나라의 나의 가까이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내 뜻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축복된 운명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을 영접하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라. 그러면 내 뜻이 너희의 뜻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은 너희가 내 뜻대로 사는 일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선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내 뜻을 따르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라는 증거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모든 사랑과 모든 염려로 돌본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을 나의 자녀로 느끼고 사람을 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을 통해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면, 그들은 염려없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서로 간에 선하게 대하고, 모든 위험 가운데 도움을 주라. 너희 모두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고, 단지 가능한 곳에서 도움을 주라. 너희 자신이 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다.

아멘

사랑 없음이 저 세상에까지 주는 효과.

B.D. No. 5322

1952년 2월 23일

사랑 없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아주 끔찍하게 역사한다. 왜냐면 사랑 없음이 가장 두꺼운 걸 형체로 혼을 감싸, 어떠한 빛도 혼에게 도달할 수 없게 하여, 혼이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빛은 모든 곳에 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혼 안으로 빛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빛을 발산하고, 내면으로부터 혼을 밝게 해주고, 걸 형체를 해체시킨다. 그러면 빛이 이제 외부에서 역사할 수 있고, 혼은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이 이 땅에서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지식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한 혼에게 저 세상에서 빛이 보장이 된다. 어두움은 영원히 사라지고, 혼에게 모든 것이 계시되고, 더 이상 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된다. 왜냐면 혼 자신이 사랑을 통해 빛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일은 혼이 영원히 멸망 받는 일이다. 왜냐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고통당하는 혼은 축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은 전혀 사랑이 없는 자의 희생자가 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없는 상태를 자신의 영향을 받도록 허용하고, 단지 자기 사랑이 강하고, 이웃을 사랑이 없게 대하는 혼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사탄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혼을 유혹하고, 자신의 느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일은 혼에게 죽음이고, 사람의 생각에 독약이고, 생각의 결과가 진리가 아니고, 악한 의지를 갖게 한다. 이로써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다시 악을 생산한다. 이런 일이 다르게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고, 사랑이 없음과 미움이 나타나는 곳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증가된 악으로 저 세상에서 역사하여, 그 곳의 혼을 항상 더 깊은 심연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심장을 더 강박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사탄을 진실로 혼의 가장 큰 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일이 저 세상에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지 사랑으로 이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저 세상의 혼들에게 병든 혼에게 약처럼 역사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 이런 병든 혼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일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강박한 혼도 사랑의 비추임을 통해 초기에는 자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혼이 한번 사랑을 행복으로 느끼면, 사랑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변화되게 한다.

사랑이 대적자에게 대항하는 가장 효과가 있는 무기이다. 대적자는 사랑에 대항할 수 없고, 도망치고,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의 비추임에 영향을 받기 전에 자신의 희생자를 놓아준다. 그러므로 사랑 없음에 대항해 싸우라. 사랑 없음이 멸망으로 인도함을 알라. 반면에 사랑의 역사는 너희에게 빛의 나라를 열어주고, 너희가 사랑을 통해 그들의 사랑의 부족함과 이 땅에서 사랑이 없는 삶의 방식의 결과로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이 빛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라. 사랑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다.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 모두를 축복되게 할 수 있다.

아멘

육체의 일은 드러나게 된다. 저세상.

B.D. No. 5670

1953년 5월 7일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역사는 저 세상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일은 육체가 한 일이고, 이 일을 하게 한 원동력에 따라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은 자신의 영

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몸의 갈망은 대부분 영이 추구하는 일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은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고,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 안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일하면, 그는 사랑을 행하고, 그는 이런 일 후에 언젠가 보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육체의 욕망은 항상 자기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은 마찬가지로 저세상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보상은 단지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 형태이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기심으로만 역사하고 일한 사람들은 이미 보수를 받은 것이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스스로 이 땅의 운명을 만들었고, 저세상에서 어떤 임금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이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부와 행복 속에서 살 수 있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 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선한 일도 뒤따르지 않고, 그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러면 육체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의 역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힘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불쌍한 상태로 저세상에 도착하면, 그가 이 땅에서 놓친 일을 보충할 힘이 없게 되고, 그러면 그는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 도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도움도 또한 이 땅에서처럼 그의 의지를 전제로 한다. 한 혼이 이 땅에서 가졌던 의지가 저세상에서 달라지는 일은 희귀한 일이다. 그가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단지 그의 의지였다. 왜냐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했고,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일한대로 영의 나라의 너희의 상급이 정해진다. 비록 너희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지 않은 일은 너희의 잘못으로 간주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을 위해 역사하고 일하라. 이 땅의 삶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말고,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의 운명을 생각하고, 이 생명을 위해 일하라.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땅을 떠나고, 너희의 역사에 따라 심판을 받은 날에 단지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라. 왜냐면 너희가 단지 사랑의 역사에 대해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죄에 대한 형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운명.

B.D. No. 6242

1955년 4월 21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죄에 대해 그에게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모든 일과 모든 잘못 된 생각과 행동의 효력이 나타나고 바로 이 효력들을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고 이를 고통으로 형벌로 느끼게 된다. 이런 형벌은 항상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죄 많은 삶을 살고 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신적이고 순수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드는 죄에 대해 회개해야만 할 필요가 없이 배설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은 죄를 죄 위에 쌓아 올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꼼꼼하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들의 삶과 행동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하도록 이끌림을 받고 이 땅에서 떠나도록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아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을 끝없는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죄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어두워진 영으로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그의 이 땅의 삶에 대해 후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가 스스로 빛과 힘이 없고 모든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나를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은 내 영원한 질서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가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내 사랑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준비하기를 원하고 절대로 축복되다고 할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사람들을 쉽게 해주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인도를 받기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잘못 된 행동을 하면, 그들은 그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 그들은 절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만든 운명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꼼꼼한 고통을 알고 존재가 이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또한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런 일이 내 영원한 질서의 법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있고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 자체이고 항상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축복되게 해주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경건하지 못한 갈망이 또한 경건하지 못한 운명과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두움과 가장 고통스러운 포로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자유가 없고 무기력한 상태이고 항상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존재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내 계명에 어긋나게 산 삶에 대한 형벌을 불러드린다.

아멘

저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보상.

B.D. No. 7422

1959년 10월 4일

너희는 확실한 자유 가운데 산다. 너희는 너희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는 비록 이 가운데 너희가 행하는 일에 방해받을지라도 내 뜻에 의해 의지를 실행하는데 제한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드는 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고 내 뜻에 따라 영원한 내 질서에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모든 존재들에 비하면, 너희는 너희 삶을 너희 소원대로 건설할 수 있는 자유로

운 존재이다. 이런 의지의 자유가 이 땅의 삶에 대한 너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왜냐면 의지의 자유를 내 뜻대로 향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나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지는 전적으로 내 영원한 질서의 반대되는 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의지에 따라 또는 행하는 일로 인해 나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면 짧은 이 땅의 삶이 너희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너희의 반대의 의지를 천명했고 이로써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너희의 나를 향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시 나에게 귀환할 수 있는 나와 하나가 되길 구하는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 졌다. 이를 위해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하는 목적을 위해 능력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언젠가 너희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따라 영원 가운데 거할 너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못한 너희는 언젠가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깨달음의 시간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너희로 하여금 가장 쓰라린 후회를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죽음으로 혼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혼은 단지 자주 생명의 상태라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 거한다. 그러나 혼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의식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혼은 자신의 무능력과 빛이 없음을 아프게 느낄 것이다.

혼은 자주 의심에 빠지고 그러나 절대로 혼은 소멸될 수 없어 혼은 언젠가 자신의 상태를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혼은 이런 자신을 도우려는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저세상에서 도달하기가 아주 어렵다. 혼은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혼은 사랑을 행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왜냐면 저세상에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과 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혼들을 만난다. 혼이 자신의 상태에 작은 개선을 기대하면, 이제 이런 불행한 존재들에게 사랑을 불지펴 줘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혼들은 항상 단지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세상에서 그들의 성장은 아주 힘들고 의심스럽게 된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성장에 없고 개선이 없고 영적인 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공의 안에서 모든 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혼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혼이 정화되어 혼에게 빛의 비추임을 비취줄 수 있게 되고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까지 가야만 했던 같은 사랑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

저세상에서도 강제적으로 혼이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혼은 자신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혼은 이 땅에서 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한 가운데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혼은 성장해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끝내는 혼이 이제 더욱 높은 곳에 도달하게 더 강한 빛을 받을 수 있게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항상 도움을 받는 빛의 정도에 도달한다.

혼은 저세상에서 위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자유의지 스스로 혼을 인도해야만 한다. 혼은 이 땅에서처럼 항상 사랑을 행해야만 하고 사랑을 통해 결국 저세상의 첫 번째 목표요 마지막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판단한 것처럼 너희는 판단받을 것이다.

B.D. No. 7638

1960년 7월 2일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는 판단받을 것이다. 너희가 자원해 주길 원하는 것처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희 이웃들과 나누면, 너희는 절대 부족함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언제든지 축복할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단지 사랑 안에서 역사하면, 너희는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급이 적음을 너희에게 말해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 단지 가능한 곳에서 너희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삶에서 얻으려고만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너희의 상급을 잃는다.

그러면 너희는 지속될 수 없는 세상 재물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사랑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 절대로 사랑을 행함으로 얻는 기대가 사랑을 행하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은사가 비로소 올바른 선물이 되게 하는 올바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는 판단받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베풀려는 의지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길을 충만하게 축복받는 가운데 갈 수 있을 것이고 절대로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할 너희 삶의 방식에 대한 너희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랑의 역사는 저세상에서 빛과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빛과 능력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 나 자신이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베풀 것처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내 선물에는 단지 제한이 없다. 나는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너희의 선물을 천 배로 값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이나 또는 영의 나라에서 부족한 가운데 고통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약에 너희가 항상 단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서 말하게 하면, 너희가 이웃의 고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고난을 줄이려고 시도하면, 영원까지 너희를 뒤따를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은 영적인 것이나 또는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이제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면, 너희에게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의 영원을 위해 도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혼들은 언젠가 너희가 그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너희에게 감사할 것이다. 세상 위험은 사라진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위험은 지속적이고 혼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위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제공하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내용을 너희 이웃에게 전해야 하고 아직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 동안에는 그들이 아직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 동안에는 그들이 이 땅의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너희 이웃들을 영적인 내용을 통해 행복하게 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면, 너희는 진실로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을 한 것이고 언젠가 너희는 충분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 대신 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위해 이웃을 얻는다. 너희는 너희를 통해 나 자신이 말하게 한 것이다. 이는 너희들과 너희 이웃들을 위해 절대로 축복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생명력이 있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지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렇게 되게 그를 도우면, 이를 통해 내 자녀가 나에게 돌아오게 하면, 나와 내 나라를 위한 너희의 일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영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넘치게 선물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공의. 같은 권리. 응답하는 사랑.

B.D. No. 4131

1947년 9월 29일

공의에 대한 느낌도 법 아래에 있다. 이 느낌이 여러 배로 커지는 일이 가능하다. 그럴지라도 같은 권리에 관한 경우에 제한이 가해야 한다. 왜냐면 항상 주는 일과 받는 일은 먼저 사랑의 법칙 아래 있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베푸는 일은 사랑이 정하는 일이고, 사랑이 베푸는 일의 동기가 되야만 한다. 이로써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깨어나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의 작품이 존재하려면, 사랑이 모든 창조 작품에게 쉬지 않고 흘러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제공된 사랑이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려면, 그 안에 힘이 증가되려면,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

베푸는 일은 사랑을 증명한다. 그러나 받는 일은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자신이 동인 되어, 위로부터 온, 다시 위를 향해 인도하는 영적인 선물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선물은 단지 세상적인 효과를 준다. (1947년 9월 29일) 다시 말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선물을 받을 것을 예상해야만 하고,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 적게 또는 전혀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못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영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만 한다. 그러면 단지 주는 사람의 의지에 의미가 있고, 행동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사랑의 정도가 항상 사람이 베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베푸는 일을 일반화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정도가 항상 똑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더 나아가 엄격하게 자기 비판을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인이 되지 않은 단지 교육이나 또는 습관에 의해 나타난 행동을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행동은 인정할 만한 일이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동인이 된 모든 행동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왜냐면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혼의 성장정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 땅의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높인다. 공의로운 행동은 실제 사랑과 연합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대부분 공식적으로 정상을 참작하려는 감정에 인도된다. 이런 행동은 심장이 동참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 사랑을 행한 것으로 영원에까지 사람들 뒤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생각하고, 공의롭게 행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이와 반대는 이웃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는 사랑이 없는 일이고,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은 사랑의 계명의 성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의를 항상 똑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절대적 똑같은을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법

칙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제 자기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거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가 베풀기 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지라도 이런 의지가 자유로워야만 하고, 그의 의지가 강제적으로 한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베푸는 이유가 습득한 형식이고, 이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1947년 9월 29일) 그러므로 너희의 베풀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지하게 어떠한 느낌이 너희를 인도하는지 자신을 점검하라. 전혀 온기가 없는, 올바른 행동으로 만족하지 말라. 대신에 너희 심장의 재촉을 따르라. 그러면 사랑이 너희를 정할 것이다. 모든 생각과 원하는 일과, 행동이 선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한 사람만이 너희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도움이 모든 곳에서 필요할 경우에 공의롭게 행하라.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베풀어 주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나눠주려고 노력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기쁨을 전파하라. 두려워하며 제한을 두려고 하지 말라. 왜냐면 이런 일은 사랑을 사라지게 만들고,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너희가 어느 정도 세상 질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첫번째로 성취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사랑이 가장 먼저이다. 하나님의 질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공의가 포함된, 다른 모든 선한 성품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사랑. 주는 일의 기쁨. 응답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믿음.

B.D. No. 4986
1950년 10월 21일

너희를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너희 안에서 사랑의 불을 지피우려고 하라. 항상 새로운 양분을 주어, 너희를 영원히 축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제한이 없는 자유 가운데 힘과 빛이 충만한 상태를 보장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의 뜻대로 역사할 수 있고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극복한 것이다. 왜냐면 모든 무능력함과 모든 연약함이 너희로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살게 되고, 축복되게 될 것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일어나게 해줄 수 없다. 너희는 이런 사랑을 스스로 너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야만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면의 행복한 감정에 자극받아, 항상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행할 것이고, 너희는 항상 너희 안에서 불길을 유지하며, 불길에 양분을 제공할 것이다. 너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할 것이다.

주는 기쁨이 단지 너희로 하여금 또 다시 새롭게 사랑을 행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들을 돕는다면, 너희는 이를 체험할 것이다. 이는 세상의 보상 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보상이다. 왜냐면 도움을 받은 사람의 너희를 향한 눈빛이 응답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이웃의 심장에 다시 사랑의 불을 지핀 것이고 너희가 불씨가 화염이 되게 한 것이다. 이 사랑의 불은 전파가 되 사람들에게 나눠진다. 단지 하나가 된 사랑의 역사가 인류를 인류가 처한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의 사역이 빛과 은혜를 주고 너희를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더 많이 식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이웃의 고난을 위해 심장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리가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의 연결시킬 수 없게 벌어진 것이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의 심장의 어두움이 더 이상 물리칠 수 없게 되어버린 일들이 드러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빛이 비추어 질 수 없어서 밝음이 없기 때문이고, 도울 수 있는 한 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가장 심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힘과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런 힘과 도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믿으라고 조언하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두운 영속에 즉 큰 위험 속에 있고, 그들은 이미 죽음 속에 있고 실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의 의지가 고백해야만 하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는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 영 자신이 너희를 밝게 해주어 너희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를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라. 왜냐하면 혼이 생명을 선택할지 또는 죽음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너희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극복했고, 마지막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스스로 빛과 진리 안에 서있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

B.D. No. 5019

1950년 12월 13일

나를 향한 사랑이 너희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만든다. 비록 너희가 감사하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감사가 심장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심장 안을 볼 수 있다. 입술은 자주 심장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은 나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러나 심장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느낄 수 있고, 나는 유일하게 그런 느낌을 인정한다. 누구든지 혜택을 받으면 그의 심장도 응답하려는 사랑을 느끼고 기부자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선물을 받는 일은 내면의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일이고, 그가 받는 일이 정당하다고 이웃이 느끼게 하면서 이웃에게 오만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 일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그에게 제공하는 영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내 은혜의 선물을 항상 감사가 충만한 심장으로 받는다. 겸손한 어린아이의 사

량은 항상 감사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웃에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주는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너희를 향한 그의 사랑에 나쁘게 응답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단지 감사를 받기 위해 주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진 모든 선물은 감사함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로써 주는 사람도 주는 기쁨을 알게 하고, 주는 사람의 사랑이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불타오르게 한다. 왜냐면 따뜻하게 느끼는 감사가 더 많이 베푸는 일을 하도록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감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왜냐면 사랑 없는 감사의 말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과 생각 및 행동은 유일하게 자신을 창조한 분에 대한 감사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의 심장은 깊은 겸손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선물을 감사하는 가운데 영접한다. 이런 감사가 내가 기뻐하는 감사이다. 내가 내 피조물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축복되도록 항상 제한이 없게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도우려는 의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B.D. No. 5635

1953년 3월 25일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내가 축복한다는 내 말을 믿으라. 도우려는 의지는 절대로 내가 싫어하게 만들 수 없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이다. 나는 자주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지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주고, 너희의 생각을 자극하고, 너희가 촉구받는 일을 행할 힘을 너희에게 준다. 단지 이 일을 통해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이 단지 올바른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주기를 원해야 하고, 너희가 행하는 일을 통해 너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곳에서 너희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 왜냐면 너희의 사랑의 역사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고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하고 이를 통해 생명을 주는 가장 고귀한 목적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고, 그러므로 사랑이 강박한 심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묶임을 받은 존재에게 구원을 의미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을 절대로 주저하지 말라. 이웃에게 좋은 생각을 보내라. 이 땅과 저세상의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혼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그들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하면서 그들 안에 빛을 주려고 시도하라. 너희가 항상 단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랑을 베풀다면, 사람들이 감사하게 느끼고 응답하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너희는 어둠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게 유익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너희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면, 불의한 일을 행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너희의 의지를 보고 내가 유일하게 이런 의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위험이 아주 크고,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는 모든 일은 공흠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이고, 너희는 이런 역사의 효력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 이런 성공의 역사는 다시 사랑의 역사로 되어 있다. 이 땅과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서 모든 사랑의 광선을 행복하게 느낀다는 사실이 너희가 지칠 줄 모르게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해줘야 한다. 모든 작은 불씨가 퍼지고, 빛을 발산하고, 빛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이 땅이든지 저세상의 나라이든지 너희가 사랑하는 심장으로 품고, 너희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너희가 지칠 줄 모르게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해줘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약속. 조건과 성취.

B.D. No. 3744

1946년 4월 16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러면 삶을 위한 모든 싸움이 너희에게 극복할 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약속했고, 너희에게 영적인, 육체적인 보살핌을 약속했고, 이 땅에서 최종적인 목표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보장한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그가 그의 모든 약속에 붙인 조건을 성취시킨다면, 그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너희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추구하는 일에 그의 약속의 성취가 달려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은 단지 이 땅의 삶 자체를 위해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 땅에서 가능한 최고의 온전함에 달성하도록 너희에게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이 땅의 길을 보여주었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삶의 모범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내면이 아직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에게 안전한 수단과 이런 수단이 영원 가운데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너희에게 조건과 약속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축복과 평안 속에서, 또한 축복이 가득한 일을 하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조건들은 사랑 안에서 중단 없이 일하는 것이다.

모든 약속과 그의 성취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전제로 한다. 너희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이 땅의 삶을 염려없이 살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너희를 보살피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혼과 육체가 곤경에 빠지게 하지 않고, 너희의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곤경이 사라지게 한다. 그의 말씀은 진리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진리로 남을 것이다. 이를 믿는 굳은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앞에, 너희에게 내면의 평화와 안전을 제공한다.

그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구부릴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의지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라. 모든 심장을 다해 영원한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아버지께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의 모든 약속은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너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형제인 이웃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한다.

너희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기에 힘이 부족하면, 너희는 힘을 구하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전에 영적인 재물을 구하라. 세상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속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의 긴박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너희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삶을 위한 아버지의 돌봄을 약속한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지 믿는다면, 그의 말씀이 너희에게 내면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줘야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지 않는 동안에는, 즉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동안에는, 모든 세상 염려는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라.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자체인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이 된 가운데 살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의 운명을 그의 손에 맡기고, 너희 자신을 그에게 모두 드려라. 그러면 곧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확고한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너희 자신을 정화시키고, 이 땅의 육신을 벗은 후에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너희 자신을 형성한다면, 너희에게 고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으로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단지 고향을 향하는 길에 통과하는 과정이다.

B.D. No. 6325

1955년 8월 4일

너희를 항상 단지 이 땅에서 잠시 길을 가는 사람으로 여겨라. 그러나 절대로 지속적으로 이 땅에 거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진정한 너희의 고향은 영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너희가 자유한 가운데 단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영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또한 다른 생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특정한 목표를 확신하면, 너희가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를 묶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는 이를 항상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즉 너희가 이를 마치 빌린 것처럼 여기고 잠시 동안 길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 땅을 떠나야만 하고 이제 너희의 진정한 고향으로 귀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저세상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풍성한 재물을 모아 들어가도록 돌보라. 너희가 가난하고 비참하게 너희의 고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빛나는 가운데 충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가운데 들어가도록 돌보라. 왜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너희 영적인 재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 땅의 재물에 묶임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항상 세상 재물이 헛된 것이고 너희가 어떠한 세상의 재물도 저세상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영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위험이 있고 너희가 항상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이 땅의 삶에서 주는 것을 너희는 영적인 재물로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도움을 요청받는 모든 곳에서 베풀고 도와야 한다. 너희가 곤경을 보게 된다면, 요청을 받지 않고 도움을 줘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육신의 죽음 후에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베풀 대로 너희에게 다시 베풀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 땅의 주인으로 느끼고 이 땅의 재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과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고 소유물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전적으로 벌거벗은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가난함을 쓰라리게 느끼게 될 나라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뒤에 뒤야 하고 그가 영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길가는 자로 느끼지 않고 이 땅의 지속적인 주인으로 느꼈고 그는 자신의 진정한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B.D. No. 5905

1954년 3월 17일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너희도 측량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계산해서는 안 되고 내면에서 그렇게 주도록 촉구하는대로 베풀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사랑으로 주는 것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고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는 계산하지 않고 손에 가득하게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 결과로 너희는 더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풍성하게 받을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절대로 부족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약속은 유효하다. 너희는 모든 곳에서 고통을 덜어줘야 하고 너희가 모든 곳에서 너희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한다. 영적인 위험이 세상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특별히 영적 보물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영적인 보물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그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들은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인 그들의 이웃에게 부족한 이웃이 축복되도록 돕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면, 내가 그들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할 것을 그들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 땅의 재물을 베푸는 사람은 영적인 재물을 얻는 동시에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땅의 재물을 받는다. 그의 부가 더 커질수록 그는 항상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베풀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그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사랑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표현이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타오르는 곳에서 나 자신이 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내 선물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의 심장 안에서 불타올라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받고 베풀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선물은 단지 계산이나 형식이고 나는 그런 선물을 사랑의 선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웃의 고통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라. 영적인 고통과 세상적인 고통이 너희의 연민이 깨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심장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선물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나도 또한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사랑이 내가 주게 만들고 그러면 부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고 절대로 부족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과 은혜가 이제 측량할 수 없게 너희에게 흘러가고 너희는 내 약속에 따라 측량할 수 없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측량하는대로 너희가 측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